



## 전주 봉사단체 디딤돌, 요양병원 이미용 봉사 활동

전주시의 봉사단체 '디딤돌'이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했다.

디딤돌은 지난 16일, 우리들사랑요양병원에서 이미용 및 손발톱 케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은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병원 안을 환하게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디딤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르신 45명에게 머리 손질과 미용 서비스를, 5명에게는 손발톱 정리 등 케어를 제공했다.

정성껏 다듬어진 머리와 손발톱 덕분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연신 미소가 떠올랐다.

박지윤 디딤돌 회장은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읍교육지원청, 역사교육 역량강화 문화체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15일, 군산시 일원에서 관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역량강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역사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전북대학교 김관용 특임교수의 '일제시대 피탈역사' 주제 강연을 통해 일제강점기 지역사와 생활사, 문화재 수탈 사례 등을 심도 있게 학습하며 역사교육의 시사점을 되새겼다.

이어 군산시 대신면과 옥구읍 소재 체험장에서 토기 회분 원예 체험과 갤러리 예술작품 관람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예술과 역사교육의 연계 방안을 탐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 용지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계란 나눔 행사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병삼)가 17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건강관리가 염려되는 저소득 독거 청장년층 9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부를 살피기 위한 계란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식사 해결이 힘든 이웃들을 직접 방문해 계란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폭염에 따른 건강 상태도 함께 살피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고창 학부모 동아리, 생활 속 ESG 실천 '앞장'

## 환경동아리 '통통통',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활동 진행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학부모 커뮤니티의 자율성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부모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고창 학부모 커뮤니티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환경동아리 '통통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동아리 '통통통'(회장 이선주)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부모 3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일 고창교육지원청 정책협의실에서 진행된 활동에서는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시청한 뒤, 폐의류 처리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현 옷을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재활용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어 소각·매입되어 환경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내가 버린 옷의 최종 행방과 그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학부모 커뮤니티는 △(7월) 버려진 청바지 업 사이클 키링 만들기 △(8~9월) 고창천 플로깅 △(9월) 플라스틱 병뚜껑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10월) 유네스코 유산 고창운곡락사르습지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찾아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창교육지원청 한숙경 교육장은 "ESG 실천은 텁블러·에코백 사용, 양치컵 활용, 가까운 거리 걷기,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 등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 쓰는 지구를 맑고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뜻으로 생활 속 ESG를 실천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부모가 주도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 동충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17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공익형)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여자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과 짐통 같은 무더위에 지역 제초작업 및 마을 청소 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차남 동충동장은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더운 여름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써 남은 일정 동안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19일부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피서철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0일간 지리산 뱀사골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소방서는 시민수상구조대 지원봉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구명환 등 사용법, 유사시 행동요령 등 교육을 통해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운영에 대한 만족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방문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보장하기 위해 인구밀도와 응급처치는 물론 안전지도 및 수난사고 예방 홍보 등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나 비단배관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가전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나눔 실천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유경민 원장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 이었다"며 "앞으로 탄소기업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 빌불과 일직원의 참여 확대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황산면 신임 면장, 경로당 방문해 소통행정 시동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수미 신임 면장이 부임 첫 날부터 지역 내 경로당 25개소를 방문 소통행정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17일 면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로 부임한 신수미 면장은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냉방, 화재 시설 등 안전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요령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갔다.

또한 부임伊始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지시하는 등 현장 행정으로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수미 면장은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노후와 면민들의 행복을 위해 주민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